NEWS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전남도, 5·18 역사해설사 운영

5명 이상 신청시 최대 2곳 지원

전남도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지역의 항쟁사를 직접 전달하는 5·18 역사해설사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남의 5·18 민주화운동에 관심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문 해설 서비스를 해 5·18 역사를 바로 알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됐으나 전남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장소가 지역에 흩어져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 29곳을 '전남 5·18 사적지'로 지정하고 정비했으며, 현재 역사해설사 18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역사 해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으로, 풍부한 해설 경험을 갖췄다. 전남 5·18 사적지 현장에서 도민과 학생, 관광객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5명 이상의 단체가 신청하면 해설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을 바라는 경우 전남도로 답사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8개 코스 중 하루 최대 2개 코스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자와 해설사가 일정과 해설코스, 순서를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선거운동 첫날'서 계속

"80년 5월, 소년 열사들이 꿈꾼 민주세상 만들자"

강기정 시장, 양창근·문재학·안종필 열사 묘역 참배

시청사 외벽에 '소년이 온다' 현수막…5·18깃발 게양

"양창근, 문재학, 안종필… 80년 5월 '그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세상을 꿈꿨던 소년들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는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관련기사 5·11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12일 실·국장단과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찾아 헌화·분향하는 등 '오월 영령'을 추모했다.

이날 참배는 오월손님 맞이에 앞서 오월영령에게 예를 표하고, 오월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잘 치르겠다는 다짐의 자리였다. 광주시는 이날 참배를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에 본격 돌입했다.

강 시장은 추모탑 분향 뒤 국립5·18민주묘지 1·2묘역과 5·18구묘지(민족민주열사묘역)를 찾았다. 1묘역에 안장된 양창근, 문재학, 안종필 열사의 묘역을 찾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소년들'이 꿈꿨던 민주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인물이기도 한 문재학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으로 1980년 5월21일 집단발포에 초등학교 동창 양창근 열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에 참여했다. 어머니 김길자씨는 시민군으로 활동 중인 아들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문재학 열사는 "친구가 죽었는데 나만 집에 갈 수 없다"며 친구인 안종필 열사와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 항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함께 산화했으나, 그들이 꿈꾼 민주세상은 많은 이들에게 민주·인권·평화를 향한 등불이 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인근지역 사망 희생자는 총 166명으로, 이 중 10대가 58명, 20대가 6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으로 조사됐다.

강기정 시장은 열사들이 꿈꿨던 민주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열흘간의 항쟁 속에서 숨지거나 다친 20대 이하의 많은 소년들이 있다"며 "'그 소년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더 편한 투표 참여가 가능한 광주를 만들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민주세상을 만드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사 외벽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오월주간을 맞아 국기게양대에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깃발'을 걸고,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풍성한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펼친다. 17~18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교통약자이동 지원차량의 전면 무료를 비롯해 5·18전야제 '오월텐트촌' 운영,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소년의 길' 투어, 주먹밥 무료나눔과 49개 제과점이 참여하는 빵 나눔세일,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합시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2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하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

오후에는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젊은 보수' 후보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초반 선거 구도를 '1강 1중 1약'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 달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에 이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가 그 뒤를 쫓는 형세다.

범보수 진영인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막판 변수로 보고 있으나 이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며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법원 첫 공개출석한 윤석열 '묵묵부답'

중앙지법 세번째 재판…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연합뉴스

"5·18정신 헌법 담아 국가 발전 밑돌 삼아야"

국회 토론회서 김재홍 해직언론협 대표 주장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앞두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거듭 요구하고 유엔본부에서 각국 외교사절을 초청한 5·18 기념식 거행을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5·18 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II'에서 김재홍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는 기조강연을 통해 "3·1 독립만세 시위대가 대항한 지배권력은 일분 군경이었고 5·18의 항거 대상은 하나회 수괴와 그 하수인 공수부대였다"며 "5·18 정신은 3·1 국민주권 및 4·19 민주헌정 수호와 역사적 동일 선상에 위치한다.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5·18을 발포 진압한 하나회 내란의 모방범죄였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흑역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회 내란 수괴들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단행되지 않은 것도 12·3 계엄 내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제1 주제발표를 맡은 김준범 80해직언론인협의회 운영위원(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대우)는 "하나회와 12·3 비상계엄 세력 간의 비교는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며 "12·3 내란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권력을 탐하는 정치군인들에게 끊기 어려운 유혹으로, 군인은 항상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신무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1 지정토론에서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은 더 이상 과거의 항쟁이 아니라, 지난해 광장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기억이며 이제 그 기억을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2 주제발표에서 김용만 5·18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 내란 수괴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문제에 대해 본격 거론했다.

김 상임이사는 "신군부 하나회를 대상으로 포함한 5공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실효성이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지정토론에서 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 소장)는 "미국 의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해 학술회의를 비롯해 UNESCO 인증 5·18세계기록유산 사진 전시, 5월 단체들과 미국 상하의원들과 간담회, 미국 언론에서 5·18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